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로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roque Characteristics Shown in Contemporary Fashion

이 신 영

Shin-Young Lee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의상학전공 강사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Heinrich Wölfflin, in his book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categorizes every art form into two styles: one is classical art as an intellectual activity with the rule system based on reason, and the other is baroque art as intellectual activity with the intuitive or spiritual rule system. This study examines Wölfflin's baroque formative art paradigm through architecture and analyzes fashion based on such formative princip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n architecture, what is "pictorial" meant multiple visual forms concerned with diverse viewpoints, which appeared as expression of various impressions based on viewpoints. The sense of "depth" in baroque architecture was an expression of internal examination through the existence of projecting parts that cannot be detached from a main body. Such internal examination could be found in the multi-layered form of the structure of clothing, and concluded as the expression of a new sense of form. The "open form" of baroque architecture has the tendency to substitute a non-complete for a complete, an indefinite for a definite form. This resulted in the expression of incongruity, tension, and free impressions, and consequently, it was expressed in fashion as a non-constructive style based on open form. The "singular unity" of baroque architecture deprived equally the independence of parts for the sake of stressing the overall theme. In fashion, such singular unity was expressed by nullifying the boundary of an overall design, a sense of overwhelming form due to excessive overlap and juxtaposition.

As a result, the whole features of the baroque formative paradigm shown in contemporary fashion were the process of generation and change in form. The process of constant change happening in contemporary fashion is therefore the process of self-innovation, in which the baroque formative paradigm offers visual, structural and stylistic changes that are rich and diverse.

Key Words : baroque, fashion, formative paradigm

I. 서론

대표적 형식비평주의자인 뵐플린은 자신의 저서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¹⁾을 통해 모든 예술형태를 두 가지 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이성적 법칙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적활동으로서의 예술이고, 다른 하나는 직관적 혹은 영감적 법칙체계를 가지고 있는 감성적 활동으로서의 예술이다. 뵐플린은 전자를 고전주의적 예술의 개념으로, 후자를 바로크적 예술의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이 두 가지 양식이 서로 공조하며 시대에 따라 한때는 전자의 것이, 한때는 후자의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부침하며 예술의 역사를 만들어 왔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뵐플린이 그의 저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예술적 표현은 양식적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분류는 가치 판단과는 거리가 멀며, 표상형성의 형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뵐플린의 관찰 대상은 소묘, 회화, 조각, 건축이었지만, 이러한 관찰방법은 패션디자인을 포함한 여타의 조형 활동에 관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셔(V. Fischer)는 대개의 디자인 된 오브제들은 그것들만의 분명한 고유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오브제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떤 형상들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²⁾ 따라서 그 세부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각 예술 영역에 있어 그 상호간의 유사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예술 양식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다양한 예술 영역간의 비교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오브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보편적인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패션과 건축의 관계에 있어 프뤼겔(J. C. Flügel)은 복식의 유행이 건축과 실내 장식 같은 다른 유행과 어떤 패러리즘(parallelism)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³⁾,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는 패션과 건축을 비롯한 디자인 분야는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인간 척도와 관계된다는 면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건축에 나타난 바로크적 조형 패러다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현대 패션 디자인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결론적으로 바로크적 예술 양식이 패션을 통해 드러내주는 미학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의 연구범위는 뵐플린의 저서 <미술사의 기초개념>에 한하도록 하며, 디자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대 패션의 범위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해외 컬렉션 디자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조형 예술 양식으로서의 바로크적 특성을 패션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패션

1)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역 (1995).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서울; 시공사

2)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p. 156.

3) Lauer, J. C. and Lauer, R. H. (1981).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 6-19.

4) Broby Johansen, R. (1968). *Body and Clothes*. N. Y., Reinhold Book Co., p. 5.

디자인을 고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디자인 연구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바로크 양식을 드러내주는 조형패러다임들

1. 회화적인 것

건축물의 형태가 확정되고 견고하며 항구적인 것으로 파악되는가, 아니면 실재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운동, 즉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 판이한 건축적 인상이 가능하다. 전자를 고전주의적 건축의 특성이라 한다면, 후자가 바로 바로크적 건축의 특성이다.

통상적으로 운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모두 회화적이라고 한다. 공간의 입체성은 단지 신체적 기관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공간 효과는 모든 건축에 고루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에 회화적인 매력이 가해지면, 그것은 순수 시각적인 회화적 효과를 의미할 뿐, 일반적 의미의 촉각으로는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다. 한 공간이 전체적으로 회화적 인상을 띠게 되는 것은 개별 공간의 건축적 특성보다는 감상자의 눈에 비친 현상에 기인한다. 중첩 효과만 하더라도 겹치는 형태와 겹쳐지는 형태에 의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때 개별 형태는 가축성을 띠지만 형태들이 전후로 늘어서서 생겨난 광경은 단지 가시성을 띠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점’이 고려될 때에는 벌써 회화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크 양식에서는 처음부터 눈에 보이는 ‘상’을 염두에 둔 구성이 이루어진다. 이 ‘상’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 형태에서 멀면 멀수록 건물의 회화적 성향은 크다고 보아야 한다.

고전적 취향은 항상 명료한 선과 가축적인 윤곽을 선호한다. 반면에 바로크 양식은 윤곽선의 의미를 무시하고 테두리를 흐림으로써 형태 자체를 복잡하게 하며 그 형태들 간의 질서를 한층 더 미묘하게 만들어 버린다. 정지된 인상을 변동하는 인상으로 지향하여 형태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양한 양상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켜지는 바로크의 기본 이념이다.

<그림 1>의 성 아그네스 교회당은 돔 형태의 지붕을



<그림 1> 로마의 성 아그네스 교회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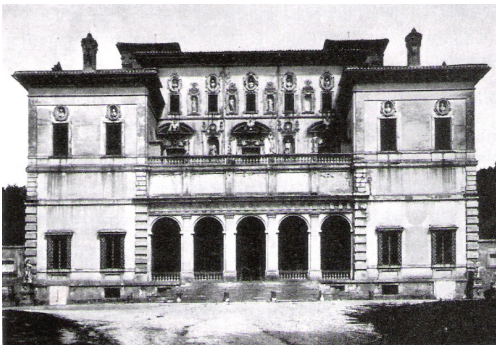
5)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역 (1995). 앞의 책, p. 36.

지냈으며 두개의 정면부 탑을 지닌 전형적인 집중식 구조를 띠고 있다. 화려한 형태적 요소도 회화적 효과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직 회화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작품의 전체적 구성에 회화적 성향을 부여하는 것은 이 건물이 일련의 변화하는 조망을 예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다. 고전적 건축이 실재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고 감상자의 조망을 통한 아름다움은 단지 건물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 정도로 여기는 반면, 바로크 건축에서는 시각적 현상이 애초부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이 시각적 현상은 다양한 시점을 통해 본 복수의 개념이지 결코 단일 시점을 통해 본 단일 광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건물은 시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양태를 띠며 바로 이처럼 변화하는 양상으로 인해 운동감이 유발된다.

2. 깊이감

고전적 예술에서는 평면적인 층구조가 선호되며 모든 깊이는 그와 같은 일련의 층구조에 지나지 않는 반면, 바로크 예술에서는 애초에 평면적 인상이 배제되어 그 핵심적 효과나 현상에 대한 정수를 내진적 원근법을 통하여 추구한다. 소위 ‘평면 양식’이 집중식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 평면 양식의 집중식 건물은 원래 빙 둘러 보아야 제대로 감상이 되지만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모습을 띠므로 특별히 내진 효과가 느껴지는 않는다. 또 입구가 명시된 경우라 해도 결코 그것이 전경과 후경의 관계를 가늠케 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못한다. 바로크는 바로 이러한 점에 반기를 들어 집중식 형태를 취하되 사방으로 동일한 형태를 띠던 것을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끔 조절하여 방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전경과 후경을 성립시킨다.

고전적 양식에서의 벽면은 단순 평면적 병립 원리에 따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와 넓이의 구획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구조에 공간적인 차등의 요소가 도입되면 곧 양상이 바뀌어 동일하게 분할된 구획일지라도 아주 다른 효과를 띠게 된다. 즉 중복과



<그림 2> 빌라 보르게제

중첩의 요소가 등장함으로써 내진적 매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깊숙한가는 전혀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바로크 양식에서는 중앙부와 돌출부를 다룸에 있어 전체를 관통하는 평면적 인상이 내진적 요소에 의해 아예 압도당해 버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바로크 양식에서는 앞으로 돌출한 부분과 뒤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근원적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대비시킨다. 빌라 보르게제<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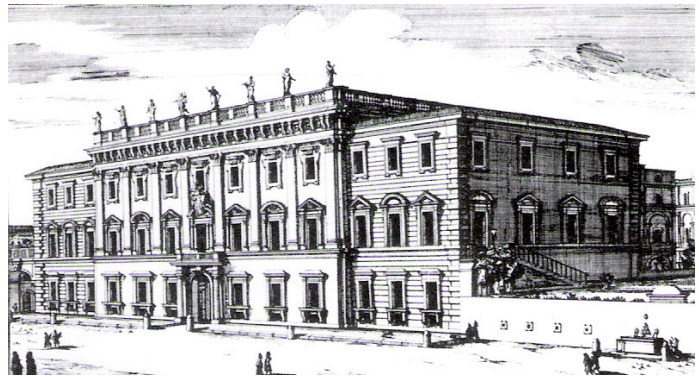
2>6)의 연회장에서 벽주면과 창문들은 서로 아주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 감상자는 필연적으로 앞으로 튀어 나온 부분과 뒤로 물러서 있는 부분을 서로 연관시키면서 이 건물의 특성을 그 내진성의 탁월함에서 찾는 수밖에 없게 된다.

3. 개방된 형태

구축적 양식은 무엇보다 완결되고 명료한 법칙성을 추구하는 양식인 반면 비구축적 양식은 법칙성을 은폐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양식이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효과의 핵심적 중추를 이루는 것은 조직적 필연성과 절대적 불가변성인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규칙이 없는 듯한 양상을 띤다. 물론 모든 예술은 미적 차원에서 일종의 형식을 띠게 마련이지만 바로크 양식은 이 규칙을 즐겨 은폐하며 제한이나 체계를 해소하여 부조화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한편 장식적 측면에서는 우연적 효과를 꾀한다.

구축적인 양식에는 균제감과 안정감을 주는 모든 요소가 속해 있는 반면 비구축적 양식은 폐쇄된 형태를 개방시켜 안정된 비례를 한층 덜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리하여 완결된 형태는 비완결적인 것에 의해, 한계지워진 것은 한계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안정감을 주는 인상 대신 긴장감과 운동감을 주는 인상이 대두되게 된다.

베르니니는 팔라초 오데스칼키<그림 3>에서 복층 구조를 관통하는 열주 대열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 자체는 별다른 새로운 것이라 볼 수 없다. 팔라디오(Andrea Palladio, 1508-80)도 이미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한 바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별다른 상하 구획 없이 열주



<그림 3> 팔라초 오데스칼키

대열을 수평으로 관통하고 있는 복층의 커다란 창문 행렬은 확실히 명료한 구조와 구획을 추구하는 고전적 단계를 벗어난 비구축적 배열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구축적 요소를 적용할 만한 가능성이 당연히 한정되게 마련이다. 바로크 양식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엄격한 인상을 자유로운 인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비

6)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역 (1995). 위의 책, p. 166.

7)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역 (1995). 위의 책, p. 266.

구축적인 것에는 여전히 구축적인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어떤 전제에서 출발하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법칙성의 해체도 따지고 보면 그 법칙을 따랐던 이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다.

4. 단일적 통일성

바로크 양식이 가져온 새로운 국면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통일성 개념이 아니라,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상실하여 전체 속에 함몰되는 절대적 통일성 개념이다. 개별 부분이 독립적 생명력을 발하는 가운데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대신, 이제 부분은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 모티브로 귀속되게 되었으며 전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획득하게 되었다.

바로크적 통합은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현되었다. 때로는 부분들의 독립성을 균일하게 박탈하는 것을 통해 통일성을 도모하는가 하면 때로는 몇몇 모티브를 압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다른 것들을 흡수해 버리기도 한다. 고전 양식의 미술에서도 흡수와 귀속이라는 요소는 존재하지만 이 경우 귀속된 부분들은 여전히 그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 바로크 양식에서는 그것을 전체 연관에서 떼어놓았을 경우, 지배적 요소마저 그 의미를 잃고 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련의 수직적, 수평적 형태들이 변모를 겪게 되었으며 일체의 구획 공간이 새로운 차원의 전체적 효과를 위해 독립성을 포기하는, 훨씬 거대하며 통일적인 내진적 구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점진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4> 훌렌슈타인 궁

순수 바로크적 유형으로 이층에 등장하는 열주 배열이 이후 서양 건축의 한 범례가 되다시피 한 로마의 팔라초 오데스칼키<그림 3>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에서 맨 아래층은 명백히 받침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곧 이 부분이 비독립적 요소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건물에서는 모든 형태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효과에 일조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벽주들 사이의 간벽은 전체와 고립되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띠지 못하며 창문들의 형태도 벽주들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조성되어 있다. 또 벽주 자체만 하더라도 결코 개별 형태로서의 효과가 아닌 전체 안에서 효과만을 지닌다. 현재 대구교 공관으로 쓰이고 있는 뮌헨의 훌렌슈타인 궁<그림 4>⁸⁾은 후기 쿠빌리에(Jean

8)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역 (1995). 위의 책, p. 267.

François de Cuvilliès, 1698-1767)의 각별히 뛰어난 작품으로 그 표면이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 어떤 벽면도 따로 독립되어 파악되지 않으며 창문은 벽주와 혼연일체를 이루으로써 구축적인 의미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III. 패션에 나타난 바로크적 특성

1. 회화적인 것 - 시점에 따른 다양한 인상의 표현

고전적 건축은 으레 정지한 상태의 미를 추구하지만 바로크적 아름다움은 운동감을 통한 아름다움이다. 전자에서는 ‘완전무결한’ 형태가 그 주종을 이뤄 영원불변한 비례적 완벽성을 가지화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그러한 완결된 존재의 가치는 생동하는 생명의 이념 앞에서 빛을 잃고 만다. 형태의 생김새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것이 운동한다는 사실이다. 운동감이야말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인 것이다.

정지된 인상이 아닌 변동하는 인상, 이 운동감은 바로크 건축에 있어 회화적인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다양한 시점을 고려한 복수의 시각적 형태를 의미했다. 패션에 있어 이러한 바로크적 운동감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시점이 고려된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적 형태를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표현된다.

앞, 뒤, 좌우 측면 등 입체적 인체 위에 올려지는 의복 구조의 형태는 자연히 입체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입체적 구조는 감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일정한 관찰 시점을 전제한다. 고전적 패션 디자인에 있어 일반적인 관찰자의 시점이 정중앙 앞면이었다면, 바로크적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시점이 다양하며, 한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의 경우, 시점에 따른 스타일의 구조가 중층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면과 측면,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스타일의 구조가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관찰자의 시점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이미지 양상의 전개, 이것이 바로 패션에 나타나는 회화적 특성이다.



<그림 5>

2. 깊이감 - 내진성에 의한 새로운 형태감

바로크 건축에 나타난 깊이감의 표현은 본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돌출부의 존재를 통한 내진성의 표현이었다. 형태 앞에 형태, 겹쳐진 것 앞에

9) Junya Watanabe Comme des Garçons, 2004 F/W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겹치는 것 하는 식의 중복과 중첩으로 이루어진 바로크적 구조들은 새로운 차원의 형태감을 제시한다.

바로크적 깊이감의 표현은 패션에 있어서 의복구조의 중층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6>¹⁰⁾의 디자인은 하나의 독립적 완성품인 원피스를 기존의 착용 체계에서 벗어나 단지 목만을 끼어 전체 의상 위에 매달아 놓음으로써 아이템을 중첩시키고 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개별 아이템을 중첩시킴으로써 감상자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감을 발견하게 되며, 중첩되어 있는 아이템을 인식하는 시각적 순차에 의해 내진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7>¹¹⁾의 디자인은 <그림 6>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의 중첩 구조이다. <그림 7>의 경우 각기 독립적인 아이템인 원피스와 탑이 착용자에 의해 서로 교차 중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감상자는 이 디자인을 기존의 형태 가치인 ‘원피스와 탑의 착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원피스와 탑이라는 아이템은 기존의 가치에 있어 병행 착용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일반적인 착용의 경우 원피스가 탑 위에 있거나, 탑이 원피스 위에 있거나 하여 그 착용의 체계가 순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디자인에 있어 이 두 아이템은 중첩 되어 두 개의 개별적 형태감이 아닌, 즉 원피스와 탑의 어느 쪽에도 편중되지 않은 채 새로운 차원의 형태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두 개 아이템의 교차 중첩에서 오는 공간적 깊이감의 표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3. 개방된 형태 - 열린 구조에 의한 비구축적 양식

바로크 양식에 따르면 건물의 생동감이나 아름다움은 완결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 그리고 영원한 생성과정을 통해 감상자에게 늘 새롭게 다가들으로써만 가능하다. 건축에 있어 개방

10) Martin Margiela, 2002 F/W

11) Lutz, 2003 S/S

된 형태는 완결된 형태를 비완결적인 것으로, 한계지워진 것을 한계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규칙이 없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바로크 건축은 폐쇄된 형태를 개방시켜 안정된 비례를 한층 덜 안정된 상태로 전환시킨다.

바로크 건축에서 추구한 부조화, 긴장, 자유로운 인상의 표현은 패션에 있어서 비대칭 요소의 사용, 비완결적 구조, 탈정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8>¹²⁾의 디자인은 비대칭적인 구조와, 가변적인 구성으로 바로크적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목과 팔을 감싸고 있는 의복의 구조는 열린 형태의 개방된 구조로, 착용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비완결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전적 아이템의 닫힌 구조, 즉 구축적이며 정형화 된 형태 구조에서 벗어나 비구축적이며 탈정형화 된 양식을 보여준다. <그림 9>¹³⁾의 디자인은 고전적 소재 사용 방법을 벗어난 비구축적 양식을 보여준다. 즉, 패션에 있어 <그림 9>와 같은 디자인의 소재는 몸판과 소매에 걸쳐 일관된 소재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그것이 패션에 있어 구축적 양식이라면, <그림 9>과 같은 소재의 사용은 바로 탈정형화 된 바로크적 비구축 양식인 것이다.

4. 단일적 통일성 - 독립성의 균일한 박탈

바로크 양식이 보여주는 형태의 무한한 융합은 개별형태가 지닌 독립적 기능의 해체와 주요 테마의 강조라는 두 가지 요소가 관건으로 작용한다. 개별 부분들이 하나의 주제로 귀속되는 바로크 양식은 감상자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전체가 ‘구획된’ 듯한 인상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러한 단일적 통일성으로의 과정은 앞에서 언급한 회화적 성향에로의 발전, 비구축적인 성향에로의 발전 과정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지속적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회화적 효과는 부분들의 고립을 거부하는 것과 늘 관련되며, 통일적 구성은 비구축적 취향의 소재들을 통해 쉽게 표현된다.

바로크 건축에 나타난 단일적 통일성은 전체 주제의 강조를 위해 부분들의 독립성을 균일하게 박탈하는 것이었다. 현대 패션에 있어 이러한 단일적 통일성은 전체 디자인의 경계 무효화, 과도한 중복과 중첩으로 인한 압도적인 형태감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림 10>¹⁴⁾의 디자인은 감상자로 하여금 개별 아이템, 디테일



<그림 10>

12) Donna Karan, 2004 F/W

13) Balenciaga, 2004 F/W

14) Boudicca, 2004 F/W

의 구분적 지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모든 경계선이 함몰되어 있다. 이것은 소재 자체의 비구축적 성향에 의한 것이기도 하며, 색채 역시 전체 형태에 일관되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서로 중첩되어 있는 여러 조각의 원단들은 감상자로 하여금 개별 아이템의 형태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전체는 구획되지 않은 덩어리 실루엣으로 부분들간의 독립적 형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단일적 통일성은 고전적 의복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개별 아이템-디테일의 독립적 성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감상자는 대상의 회화적 특성에 몰입하게 된다.

IV. 결 론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는 모호함을 간직한 아름다움, 즉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결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으며 부단한 변모의 양상을 띠는 아름다움도 있다.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 바로크적 유형이다. 고전적 유형은 형태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한 양상을 띠는 데 반해 바로크적 유형은 보기에 어지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감상자에게 늘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인간은 결코 절대적 명료성만을 고집하지 않으며 곧 그러한 절대적 명료성에서 탈피하여 인식하기 모호한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현대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상은 이미 일반적인 것으로, 단순하고 선적인 스타일 라인이 유행하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복잡다단하며 다중텍스트적인 스타일 라인이 유행하기도 한다. 빌플린의 조형 패러다임 분석에 의하면 전자는 고전적 스타일이요, 후자가 바로 바로크적 스타일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빌플린의 바로크적 조형 패러다임의 특징을 건축을 통해 알아보고, 그러한 조형 원리를 패션에 적용시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바로크 건축에 있어 ‘회화적인 것’은 다양한 시점을 고려한 복수의 시각적 형태를 의미했으며, 이는 패션에서 시점에 따른 다양한 인상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바로크 건축의 ‘깊이감’은 본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돌출부의 존재를 통한 내진성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내진적 특성은 패션에서 의복구조의 중층적 형태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감의 표현으로 귀결되었다. 바로크 건축의 ‘개방된 형태’는 완결된 형태를 비완결적인 것으로, 한계지워진 것을 한계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그에 따른 부조화, 긴장, 자유로운 인상의 표현은 패션에 있어 열린 구조에 의한 비구축적 양식으로 나타났다. 바로크 건축의 ‘단일적 통일성’은 전체 주제의 강조를 위해 부분들의 독립성을 균일하게 박탈하는 것이었다. 패션에 있어 이러한 단일적 통일성은 전체 디자인의 경계 무효화, 과도한 중복과 중첩으로 인한 압도적인 형태감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 전체적 면모에 있어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로크적 조형 패러다임은 형태의 변화와 생성의 과정으로 귀결된다.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고전적 형태를 변모시키고, 무의미해 보이는 결합을 통해서 전통적인 형태를 일그러뜨리는 것 모두 바로크적 조형 원리 하에 이해되는 것이다. 현대 패션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단한 변모의 과정은 결국 자기 혁신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바로크적 조형 패러다임은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적, 구조적, 양식적 변화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민경우 (1995).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하인리히 뵐플린, 박지형 (1995). 미술사의 기초개념(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시공사.
Broby Johansen, R. (1968). Body and Clothes. N. Y.. Reinhold Book Co.
Lauer, J. C., Lauer, R. H. (1981). Fashion Pow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